

Joseph JUNG

서울 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건너가 퀘벡 라발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및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세르부룩 대학, 맥길 대학 교수를 거쳐 1972년 이후부터는 몽레알 퀘벡대학 교수로 재직중. 캐나다 경제 위원회 상임연구원 역임. 현재 퀘벡 경제인 협회 부회장이자 몽레알 한국 교민회 회장.

퀘벡 경제의 문제점과 전망

정 희 수

1. 서론

퀘벡주는 캐나다의 10개주의 하나로서 면적은 1,700,000km²이고 인구는 의 4,600,000명이다. 퀘벡주의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7배이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총인구의 82%가 불어계 주민이며 영어계 주민이 7%, 그리고 나머지 11%가 이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퀘벡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은 23,000 캐나다 달러로서 세계에서 11위이다. 국제무역면에서 퀘벡주의 위치는 17위를 차지한다. 퀘벡주는 높은 생활 수준과 아울러 완벽한 기반 시설 및 세제·금융 혜택 때문에 외국 기업의 선택적 투자대상 지역이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40억불의 외국 자본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 42%가 미국자본이다. 퀘벡주에는 약 5,000명의 동포가 살고 있으며 캐나다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퀘벡주에 집중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공장, 그리고 삼미 그룹의 스텐레스 공장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캐나다의 10개주 중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도 퀘벡주이다. 퀘벡주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퀘벡주는 높은 생활수준, 완벽한 사회복지 제도, 완벽한 민주제도를 갖추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퀘벡 경제의 발전사를 설명하고 퀘벡 경제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나아가 퀘벡 경제의 전망을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캐나다에 진출함에 있어 퀘벡주가 캐나다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장에서는 퀘벡 경제의 발전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퀘벡 경제의 장·단점을 토의하고자 한다. 퀘벡 경제의 전망은 제

4장에서 다루고자 하며 아울러 캐나다·한국 관계의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퀘벡 경제의 발전사

30년전의 퀘벡 경제는 농업 위주의 경제였으며 퀘벡 주민의 생활 수준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하나였다. 당시 국민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50%에 불과 했다. 경제권은 외국기업, 특히 영어계 캐나다 기업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컨대 제조업의 20%만이 퀘벡 주 불어계 주민의 소유였다. 당시 퀘벡 산업의 생산성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온타리오주의 생산성의 6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퀘벡주가 이러한 후진 상태에서 탈피하여 불과 30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기적을 이룬 동력은 무엇인가? 이 눈부신 발전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른바 퀘벡의 “조용한 개혁 Quite Revolution”이라 할 수 있다. 퀘벡 주의 조용한 개혁은 새로운 가치관, 연방정부의 정기적 참여, 교육개혁, 산업개혁,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리더십 Leadership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종합적 사회운동이었다.

퀘벡주는 18세기말에 영국의 식민지가 된 후 계속 영어계 캐나다의 지배를 받았으며 언어(불어) 및 종교(천주교)를 포함한 정체성 Identity 보전의 위기를 거듭 체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식민지로서 뚜렷한 지도층도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지도 세력은 교회 당국밖에 없었다. 교회는 영어계 캐나다를 포함한 외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영향력을 막기 위하여 퀘벡 주민으로 하여금 영어계 주민이 주도하는 경제, 산업 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불어는 보전되었지만 경제권은 영어계 주민에게 집중되었으며 퀘벡의 불어계 주민은 산업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퀘벡 경제는 불어계주민이 주도하는 일차산업과, 외부인들이 지배하는 현대식 산업을 포함하는 이중적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불어계 주민의 생활수준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층을 형성하고 말았던 것이다.

50년대에 들어서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당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경제·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소극적이고 물질적 성취를 경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성공을 인정해주는 적극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당시의 당면과제였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전개된 것이 이른바 반교회운동 Anticlericalism이었는데, 이 운동의 지도자는 디옹 Dion과 오닐 Oneil 신부였다. 이 운동의 철학적·신학적 기반은 당시 라발대 Laval University의 사회 대학장 레벡 Levesques 신부였다. 그는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려면 우선 훌륭한 경제학자, 사회학자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당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퀘벡 사회는 사회활동 지향적 가치관을 도입하여 빠른 속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50년대초까지만 해도 퀘벡 사회의 지도층은 캐나다 연방 정부의 정치활동에 크게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50년대 중반부터는 캐나다 전 수상 트뤼도씨를 비롯하여 수많은 퀘벡의 엘리트들이 연방정부 정치 Federal Politics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정치적으로 캐나다 정치의 상당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운동과 아울러 철저한 교육개혁이 전개되었다. 당시 라발대 빠랑 Parent 박사의 지도하에서 전개된 교육개혁의 목적은 퀘벡주의 전 교육제도의 민주화와 전문화였다. 50년대까지만 해도 퀘벡주의 고등교육은 라틴어, 희랍어를 포함한 이른바 고전교육 Cours classiques으로, 소수 지도층의 자녀만이 교육을 받았으며, 그것도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경시하는 교육이었다.

빠랑 총장의 교육개혁에 따르면 국민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5년을 거친 후 두가지 과정중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는 2년과정의 기술전문학교로 진학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3년과정의 학술폭기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졸업후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후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대학의 학사과정은 3년이며 석사과정은 2년 과정이다. 이 교육개혁은 단점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퀘벡주의 사회·경제 개발에 전략적 역할을 하였다. 퀘벡의 대졸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캐나다 평균 비율을 능가한다. 최근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퀘벡주의 가장 큰 도시인 몽레알 지

역의 정규대학생 수는 74,169명인 반면 온타리오주의 대도시인 토론토의 정규대학생 수는 75,591명이다. 그러나 토론토 지역의 인구가 몬트리얼 지역 인구보다 60%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몬트리얼의 대학생 비율이 토론토 대학생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캐나다 전체에 있는 경영학 석사 학위 보유자의 약 30%가 퀘벡주에 있다. 퀘벡 인구가 캐나다 인구의 2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퀘벡주는 경영학에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퀘벡주의 교육개혁은 결과적으로 퀘벡 경제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퀘벡주의 산업개혁의 핵심은 종래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자본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의류산업, 방직산업, 제화업 등 퀘벡 경제를 오랫동안 주도했던 것은 재래식 기술에 입각한 저수준 부가가치의 산업이었던 반면 온타리오주의 산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최신기술에 입각한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퀘벡주는 꾸준한 노력으로 종래의 산업구조를 대폭 변경시켜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끝으로 퀘벡의 조용한 개혁의 가장 핵심적 주인공은 퀘벡 정부라 할 수 있다. 퀘벡 정부는 50년대부터 수많은 정부투자기관을 설립했다. 공무원 연금공단 Caisse de dépôt et de placement, 공업진흥공단 SDI, 정부의 금융공단 SGF, 농업진흥공단 SOQUIA, 산림산업진흥공단 REXFOR 등 경제 각 분야에 정부 산하기관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두 가지 전략적 역할을 했다. 하나는 필요한 “위험자본 Risk capital”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부족했던 경영자의 육성이었다. 정부 산하기관의 덕분에 불어게 퀘벡 주민의 산업 진출은 예상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 불어게 주민의 30년전의 제조기업 소유율은 20%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50%를 능가한다. 또한 정부 산하 금융기관은 퀘벡주의 중소기업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퀘벡 정부의 또 하나의 역할은 정·노·사 간의 협력과 원만한 관계 성립이었다. 캐나다의 어떤 주보다도 3개 단체간의 협의가 가장 순조로운 곳이 바로 퀘벡주이다. 이는 최근 퀘벡주내의 정(政)·노(勞)·사(使)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퀘벡주의 이른바 조용한 개혁은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퀘벡 사회를 캐나다에서 가장 후진지역에서 높은 생활수준과 완벽한 사회복지제도를 지닌 선진사회의 위치에 도달하도록 만들었다. 퀘벡주의 “조용한 개혁”은 새로운 가치관 설립, 교육개혁, 산업개혁 등을 포함한 역사적 사회 개혁이었다.

3. 퀘벡 경제의 특성 및 문제점

한 나라의 경제개발은 궁극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 산업시설, 사회기반시설, 금융제도 및 자본금, 인력, 기술개발의 수준 등 생산 투입물 들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된다. 퀘벡 경제의 기반은 역사적으로 자연자원이었다. 퀘벡 총수출액의 50%가 이러한 자연자원에 입각한 상품으로 구성되고 있다. 퀘벡 수출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품은 종이류(1위), 알루미늄(2위), 펄프 상품(6위), 목재(7위), 동(9위), 철(13위) 등이다. 또한 퀘벡은 면적의 절반이, 즉 우리나라의 8배에 달하는 약 80만 km²의 막대한 면적이 상업화 가능성을 지닌 양질의 대 산림이다. 산림 및 관련산업의 생산액은 115억불이 넘으며 총제조업 생산액의 16%를 차지하고 8만명의 취업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퀘벡주는 광업지역으로서도 세계 10대 광업국 중의 하나이다. 퀘벡주는 동, 금, 철, 티타늄, 암면, 석면 등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만여명의 취업자를 고용하고 있다. 퀘벡주의 농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만명 이상의 농업 가구가 40억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유가공업(30%), 양돈업(18%), 양계업(14%), 야채산업(10%) 등이다.

제조업은 오래동안 퀘벡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캐나다의 총 제조업 취업량의 30% 이상이 퀘벡주에 있으며 건국 이후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캐나다의 제조업의 중심지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 퀘벡 제조업의 특성은 오래동안 재래식 기술에 입각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지난 30년동안 상당한 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퀘벡 제조업의 40%가 아직까지도 생산성이 낮은 재래식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반대로 온타리오주에서는 제조업의 60%가 자동차 산업 중심의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의 댓가로 퀘벡주

제조업은 선택적 구조 개선을 보였다. 즉, 통신산업, 항공산업, 화학산업 및 유전공학 산업이 퀘벡제조업의 새로운 첨단산업이라 하겠다. 이들 산업의 비중은 아직은 빈약하여 이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하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다. 퀘벡 제조업의 구조 개선은 퀘벡 경제의 취업 창출에 큰 기여를 했다. 퀘벡주의 81년도 실업률 Rate of unemployment은 온타리오주의 실업률보다 2.6% 높았었다. 당시의 한 연구에 의하면 실업률 격차 원인의 50%가 퀘벡의 제조 산업 구조의 취약점 때문이었다. 86년도 퀘벡주의 실업률은 여전히 온타리오의 실업률보다 높았지만 퀘벡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한 실업률 격차의 비율은 20%로 낮아졌다. 이러한 자료는 퀘벡 경제가 어느 정도 제조업 구조 개선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퀘벡주의 서비스업, 도소매업을 포함한 제 3차 산업은 퀘벡 총 취업 인구수의 70%를 차지한다. 제 3차 산업은 퀘벡주의 신규취업자의 4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높은 제 3차 산업의 비중은 퀘벡주뿐 아니라 온타리오주도 마찬가지다. 퀘벡주의 3차 산업화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며 앞으로 제조업 강화에 힘쓰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다.

산업기술개발은 경제 성장의 구심점이다. 캐나다의 80년대 경제 성장을 분석해 보면 연 3%의 성장율을 보였는데 이중 50%(1.5%의 성장율)는 기술개발에 기인했으며 나머지 50%는 취업량 증가에 기인했다. 70년대의 캐나다 경제 성장에서 기술개발에 의한 성장율이 2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기술개발이 경제 성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퀘벡주의 기술개발 투자는 캐나다의 총 기술개발 투자의 25% 정도로 퀘벡주의 인구비(20%)와 유사하다. 그러나 퀘벡주의 기술개발투자는 통신산업, 항공산업, 유전공학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Nothorn, Telecomm, Spar Aerospace, Bonbardier 등 첨단산업기업체는 개인기업 기술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그외에도 많은 정부산하 기술연구소가 있다. CRIQ(산업기술), IREQ(전기산업), CQVB(BIONASS), IGM(자재), IRB(유전공학), CRIM(컴퓨터) 그리고 퀘벡주립대의 INRS(복합연구) 등은 정부산하 기술연구소이다.

완벽한 금융제도는 경제성장의 필수요건이다. 캐나다의 16개 대규모

금융기관 중 11개가 본사를 퀘벡주내에 두고 있다. 퀘벡주의 특이한 금융기관으로는 20세기초에 시작된 “데자르탱 Desjardins” 그룹이 있다. 이 기관은 원래 은행지점이 없는 주변지역의 금융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금융조합Credit cooperative으로 발족했다. 데자르탱 그룹의 현자산은 450억 달러이며 퀘벡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몽레알 지역에는 국제금융센터 IFC가 있으며 복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퀘벡주의 가장 큰 노동조합 FTQ이 운영하는 저축금융기관 FONDS DE SOLIDARITE DES TRAVAILLEURS은 근로자의 저축을 중소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주목된다. 최근 78개의 중소기업에 125억달러를 투자하여 18,000명의 취업자를 창출했다.

퀘벡의 경제는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총생산의 반은 퀘벡주내에서 소비되고 25%는 캐나다의 타주로, 나머지 25%는 해외로 수출된다. 지난 20년동안의 추세를 보면 해외 수출 증가율이 국내 수출 증가율보다 약 46% 가 높았다는 것과 자연자원보다는 가공 상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퀘벡주의 국내무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퀘벡주의 수출은 온타리오주와 동부지역주에 집중되고 있다. 퀘벡주의 수출은 동부지역의 국내수입의 48%, 온타리오주의 국내수입의 76%, 서부지역의 국내수입의 20%,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주 국내 수입의 20%를 차지한다. 그 반면에 퀘벡주의 국내 수입의 지역별 비중을 볼 때 온타리오주와의 교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온타리오주는 퀘벡 국내 수입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서부지역 주(Alberta주, Saskatchewan주, Manitoba주)와 동부지역주(New Brunswick주, Scotia주, Prince Edouard Island주, Newfoundland주)는 각각 7.5%,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2.4%를 차지한다. 이러한 국내 무역의 특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퀘벡주의 국내경제 관계는 주로 온타리오(Ontario)주와 동부지역에 제한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온타리오주의 퀘벡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퀘벡주의 온타리오 시장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다는 것이다. 캐나다 국내무역에서 가장 흑자 수지를 보이는 주는 온타리오주이다. 온타리오주의 84년도 국내무역수지는 80억불이 넘는 흑자였다. 퀘벡주도 전체적인 흑자수지를 확보했으나 온타리오주와의 무역에

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퀘벡주의 90년도 국제수출액은 243억불이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상품은 제지(26억불), 알루미늄(27억불), 차량(10억불), 통신제품(10억불), 항공산업제품(12억불) 등으로, 퀘벡의 수출의 75%가 미국, 특히 미국의 동부지역과 오대호 지역(Great lakes)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퀘벡 수출의 13%는 유럽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78년도 비중은 66%, 83년도 비중은 70%, 그리고 90년에 들어서는 75%로 늘어났다. 이 점은 퀘벡 경제의 취약점 중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겠다. 한편 퀘벡의 수출이 캐나다 전체 수출 내에서 차지하는 상품별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지 46%, 알루미늄 71%, 통신제품 46%, 비행기 엔진 80%, 비행기 완제품 52%이다.

퀘벡주의 90년도 국제수입은 284달러였다. 가장 비중이 높은 상품은 차량(12.2%), 전자제품 및 반도체(5.6%), 석유(4.6%) 등이어서 수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배적 상품이 없는 다양한 수입구조를 보여준다. 퀘벡 수입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미국의 비중은 78년도의 49%에서 90년도에는 46%로 떨어졌다. 유럽공동체의 비중도 낮아졌다. 반면에 일본의 비중은 동기간동안 4.3%에서 7%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비중이 1.2%에서 3%로 증가했다는 것도 주목된다. 퀘벡주 수출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퀘벡 시장의 다양성과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의 퀘벡주 진출가능성을 암시한다.

퀘벡주의 국제수지는 적자인 항목이 많으나 통신산업 상품과 항공 산업 상품 덕택에 계속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예컨대 통신산업의 최근 흑자는 7.3억불, 그리고 항공 산업 상품의 흑자는 6억불이었다.

퀘벡 경제의 특성과 문제점을 요약한다면 우선 특성으로는 안정된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원, 자연자원, 자본, 그리고 고수준의 기술을 포함한 생산요소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첫째, 그동안 상당한 개선이 되기는 하였지만 퀘벡 경제의 산업구조는 아직도 재래식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퀘벡주의 제조업은 통신산업, 항공산업 등 첨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둘째, 치열한 국제 경제에도 불구하고 퀘벡주의 주요 산업에서 생

산시설의 현대화와 합리화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퀘벡 경제의 핵심인 산림 및 관련 산업의 생산시설은 대체적으로 재래식 기술에 입각한 시설이므로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세째, 퀘벡주의 수출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변동에 따라 퀘벡 경제는 불안정하게 될 여지가 있다.

4. 퀘벡 경제의 전망

퀘벡 경제의 전망은 두가지 종류의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내생변수이며 또 하나는 외생변수이다. 내생변수는 퀘벡 경제의 국제 경쟁력, 캐나다 경제의 전망, 그리고 퀘벡주의 독립가능성을 포함한다. 외생변수는 국제경제의 추세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다. 퀘벡 경제가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궁극적으로 퀘벡 경제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퀘벡주는 안전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산장비와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다른 주들보다는 지속적인 정·노·사 간의 협력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정부와 노·사 간의 협조는 노임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사 분쟁에서 기인하는 생산성의 손실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노·사 협조가 대폭 개선된 80년대에 노임 증가율은 온타리오주보다 훨씬 둔화되었다. 80년도 초의 퀘벡주 평균 주당 노임은 온타리오주 노임보다 2.5% 높았었는데 88년도에는 7.5% 낮아졌다. 91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퀘벡주의 시간당 제조업 노임 단가는 12.89 달러인 데 반하여 온타리오주의 시간당 제조업 노임 단가는 14.65 달러였다. 82년도의 퀘벡의 소매 물가 지수는 온타리오주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90년도에는 온타리오주보다 4% 낮아졌다. 80년대 초에는 노사분쟁에 기인한 근로일 손실이 총근로가능일수의 65%나 되었으나 노·사 협조 개선으로 말미암아 88년에는 그 비율이 20%로 떨어졌다. 노임 상승의 둔화, 물가안정, 그리고 노·사 분쟁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퀘벡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캐나다 경제의 성장율은 60년대부터 꾸준히 둔화되었다. 캐나다 GDP

의 성장율은 60년대의 5.1%에서 70년대의 4.6% 그리고 80년대의 3.0%로 계속 떨어졌다. 취업자수는 60년대의 2.9%에서 70년대의 3.1%로 약간 증가했다가 80년대의 1.6%로 하락했다. 이것은 캐나다 경제가 성숙되어 새로운 기술 개혁없이 낮은 성장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불황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90년대에 성장율이 3%를 능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퀘벡 수출의 50%가 캐나다 타주로 간다는 것을 고려할 때 퀘벡 경제의 성장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퀘벡의 독립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거론되어 왔으며 7백만명의 불어계 주민의 공동운명을 영어계 캐나다의 경제적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 마련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년이 캐나다 정치의 고비이다. 연방 정부는 퀘벡 독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퀘벡주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추가 결정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여 토의중에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퀘벡 독립은 캐나다 전체에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퀘벡이 독립이 되면 캐나다의 동부, 동부·서부 지역 주는 미국의 추가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캐나다라는 국가는 존립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어계 캐나다는 퀘벡주의 요구를 받아주고 퀘벡주는 개별성 인정과 추가 정치권 부여에 만족함으로써 퀘벡 독립은 저지될 전망이다.

80년대초에 미국·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본 협정에 따르면 10년내로 모든 관세는 재고될 것이며 비관세 장벽도 특별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 본 협정에 따라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인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나라의 기업이 상대국에 설립될 경우 상대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는 당분간은 관세 및 관세 장벽을 유지한다. 또한 양국간에 무역 마찰이 있을 경우 양국 대표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은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첫째, 캐나다에서 관세보호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산업은 제조업이었는데, 본 협정이 체결되면 제조업 중심지인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캐나다의 현 평균 관세율

은 약 7%인 반면 미국의 평균 관세는 약 3%이다. 그러나 98년까지 양국의 관세율이 완전히 제거되면 캐나다 산업의 보호는 미국산업의 보호보다 가속적으로 제거됨으로써 캐나다가 받는 타격이 미국이 받는 타격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둘째, 수많은 미국 소속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캐나다 제조업의 총투자 중 반 이상이 미국자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70% 이상이 미국의 자본이다. 미국 기업이 캐나다로 온 이유는 보호관세 때문이었다. 미국·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이러한 보호가 제거 됨으로서 미국기업으로서의 캐나다에 남아 있을 이유가 약해지게 된다. 셋째, 캐나다 기업의 규모는 미국의 규모보다 작다. 따라서 소규모 캐나다 기업은 대규모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많으며 근래 수많은 기업의 부도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캐나다 자유협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미대륙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업 전문화가 확립됨으로써 캐나다 및 퀘벡 경제는 새로운 위치와 역할을 찾을 것이다.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범위를 넓혀서 멕시코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북미자유협정도 논의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경제 관계는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미국이 단독적으로 멕시코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캐나다는 미국 시장에서 멕시코와 무리한 경쟁을 할 것이 이 예상되기 때문에 캐나다로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은 단기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캐나다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멕시코 경제가 개발됨으로써 멕시코가 캐나다 상품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퀘벡주는 캐나다 10개주의 하나로서 캐나다 정치·사회·경제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퀘벡주는 캐나다 경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제조업분야에서는 캐나다 총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퀘벡주의 언어·문화·법률적 개별성 때문에 캐나다는 색다른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퀘벡주는 지난 30년동안 전개된 이른바 조용한 개혁으로 인해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실현했다. 바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퀘

백주는 독립까지 구상하게 되었지만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급 효과 때문에 순수 퀘벡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그러나 퀘벡주는 앞으로 추가 결정권을 취득할 것이다. 퀘벡 경제의 전망은 근본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인다. 일인당 GDP가 2만불이 넘는 성숙한 경제이므로 우리나라 같이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퀘벡 경제는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 자원, 양질의 인적자원, 개선되는 산업구조, 북미자유무역제가 마련할 3억 5천명의 거대한 북미시장을 감안할 때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